

〈何換亭圖〉를 통해 본 칠원 舞沂蓮塘과 有懷亭 일곽의 원형경관 탐색

노재현* · 손희경**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 **우석대학교대학원 조경건설공학과

1. 서론

1. 연구 배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위치한 舞沂蓮塘은 조선후기 연당과 석가산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정원 유산(<http://museum.haman.go.kr>)으로,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일으킨 菊潭 周宰成(1681~1743)이 1717년 이후 별당에 조성한 정원이다.¹⁾

특히 정원의 핵심부를 이루는 지당 국담은 당시 사대부가 만든 연못의 정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당내 石假山은 국내에서 가장 보전이 잘 된 전형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현재 함안박물관 소장의 〈何換亭圖(그림 1)〉는 도형 사료로서 정원의 원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국담의 모습이 〈하환정도〉에서 보이는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하환정도〉의 학술적 가치에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환정도〉를 살펴보면 국담을 중심으로 하환정, 풍욕루, 영귀문, 기양서원 등의 건물과 봉황석, 탁영석, 석가산, 행단, 귀두목, 목가산 등과 같은 경관요소와 몇 그루의 수목이 그려져 있다. 또한 지금은 훼손되었거나 위치 변동이 있어 온 기양서원과 정충비각과 같은 공간에 비보숲 등의 모습도 발견된다. 또한 작대산 아래 '有懷亭'이라는 건물과 방지, 석가산 그리고 폭포 등이 그려져 있어 궁극증을 자아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조경학적 측면에서는 전혀 조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환정도〉 제작 시점인 1860년 전후를 기점으로, 무기연당과 일곽의 정원시설과 경관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무기연당의 원형적 특성에 조금 더 다가갈 뿐 아니라 일곽의 정원유적의 추가 복원 및 원형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何換亭圖〉, 19C 중반 작자미상, 함안박물관 소장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대상인 〈하환정도〉는 주씨가문에 가보로 전해 내려오던 작자미상의 庭園圖로서 1860년에서 1869년 사이의 무기연당과 일대를 그린 그림으로²⁾ 당시 무기연당의 모습과 명칭,

1) 무기연당은 1984년 12월 24일 중요민속문화재 제208호로 지정되었으며, 조선후기 연당의 정수를 보여주는 백미로서 정원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2) 1858년에 마을 어귀로 이전된 정충비각이 표현되어 있고 대문의 표기가 1860년에 주도복의 효자정려 이후의 호칭인 '충효쌍정려(忠孝雙旌閣)'가 아니라 '정충려(旌忠閣)'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의 상황이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1860년 이후에 제작됐

무기연당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하환정도〉에 묘사되어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무기연당을 물론 종가와 마을, 주변 산세, 마을 어귀의 방풍림과 정충비각, 마을에서 떨어져 있던 별업 원림 역시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이다.

분석사료는 무기연당의 중심 영역 형성과 관련해서는 「하환정중수기」를, 18세기 후반 별업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유회정수석기」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II. 결과 및 고찰

1. 무기연당의 연혁과 공간 특성

무기연당은 영조4년(1728)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운 주재성의 덕을 칭송하고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난이 평정된 뒤 도내 사림의 공의로 그의 생가 한쪽 편에 만든 것이다. 이 연당을 일러 국담이라 하였는데 주재성의 호는 이에 연유한 것이다.

무기연당의 ‘舞沂’는 『論語』 「先進」 편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 曾點의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³⁾.

300년 역사의 주씨 종택은 현재 사랑채와 안채를 중심으로 한 살림집 구역, 선조를 모신 사당,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 등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건물은 국담 선생의 후손 주영홍이 앞장서고 당시 내무부장관을 지낸 주영복이 재원을 조달해 1986년에 복원한 것이다.

주재성의 장자 周道復(1709~1784)이 1777년에 쓴 ‘何換亭重修記’에는 “정유년(1717년) 봄에 군사를 모아 壇 밑에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길러 낚시터로 하였으며, 무신년(1728년)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거는 단 위에 정자를 짓고 ‘하환’이라 하였다.”라 기록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무기연당의 조성 연대를 172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무기연당은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기 11년 전인 1717년에 이미 조성되었고,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후 1728년에 중심 시설인 하환정을 건립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면 대문에 가문의 자랑인 ‘충효쌍정려(忠孝雙旌閣)’를 표기하지 않았을 리 없다. 따라서 1858~1860년에 주문 제작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임한술, 2016).

3) 『논어(論語)』 「선진(先進)」, 공자가 제자들에게 ‘네 덕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다면 어찌하겠느냐’ 물으니 증점이 답하기를 ‘저문 봄에 봄 옷이 이루어지면 관을 한 우륵인과 동자 육치인으로 기(沂)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읊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다.(莫春者 春服 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2. 〈하환정도〉 내용 고찰

1) 무기연당 外境

① 爵大山과 天柱山: 작대산은 칠원면 무기리에서 칠북면 영동리까지 뻗어 있고, 창원군 북면과 경계 짓는 산이다. 천주산은 칠원의 주산으로 하늘을 받치는 기둥 같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② 유희정: 작대산과 천주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사각형의 방지와 폭포, 석가산이 그려져 있다.

③ 천주산 아래에 10기의 둥그런 봉분 형태의 造山群이 묘사되어 있다.

④ 비보숲, 旌忠碑閣: 국담 우측 하단에는 정충비각이라 표기된 亭閣 1기가 있고, 그 왼쪽으로 길게 열 지어 도열한 수목이 묘사되어 있다. 비보숲은 현재 존치되고 있지 않다.

2) 무기연당 外園

① 본채 감은재와 사당

〈하환정도〉에는 왼쪽으로 정이 집의 대문은 특이하게도 단청이 된 솟을대문 형식의 ‘旌忠閣’라 표시된 정문이 있고 그 안쪽으로 울타리에 둘러싸인 본채 영역이 전개된다. 감은재는 주재성의 아들 주도복의 호이며 본채이기도 하다. 안채 뒤쪽에는 사묘가 그려져 있다.

② 기양서원과 영귀문

〈하환정도〉 좌측 하단 즉 무기연당의 동북쪽 뒤편으로 사당과 인접하여 沂陽書院을 그렸다. 四柱門인 詠歸門 뒤로 강학공간인 강당과 기양서원이 작대산의 지맥인 2개의 봉을 배산(背山)으로 하여 묘사되어 있다. 기양서원은 고종5년(1868) 훼손되었다가 이후 1971년에 원래 터가 아닌 무기연당 남쪽에 忠孝祠를 중건하고 ‘기양서원중수기념비’를 세웠다.

3) 무기연당의 內園

별당영역인 무기연당은 감은재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주위에 모두 담장을 쌓아 寒樓門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서문 좌측으로는 杏壇이 있으며 연당인 국담의 북쪽에는 하환정이 중심축에서 약간 서쪽에 치우쳐 남향하고 있고, 2×2칸의 규모로 북동쪽에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는 마루를 깔았다. 연못 북동쪽 모서리 방향에는 風浴樓가 위치해 있다.

〈하환정도〉의 題材이자 그림의 모티브(motive)이기도 한 何換亭은 연당의 중심축에서 약간 서쪽으로 비껴 연당과 동일 축선 상에 비교적 작게 묘사하였다.

〈하환정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연당은 매우 정교하게 묘사된 가운데 하환정 池岸에 연하여 조영자 주재성의 아호와 같이 '菊潭'이라 기재되어 있고, 남측 1단의 석축 부위로는 일종의 花塢 형태의 식재대에 초목을 심어 수경효과의 상승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담 내부에는 석가산과 갓끈을 씻는다는 의미의 濯纓石, 鳳凰石, 柄頭石, 浮石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물고기가 표현되어 있다(그림 2). 국담의 남쪽 지안에는 괴석 3-5점을 포함하여 약 8종의 초화류와 관목이 표현되어 있다. 중도에는 낙엽수와 상록수로 보이는 2종의 수목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낙엽수는 시문과 그림의 표현 형태와 색채로 볼 때 단풍나무로 추정된다.



그림 2. 하환정과 무기연당영역

4) 별업 유희정과 선산

앞서 외경에서 언급하였듯이 무기마을로부터 약 4km 떨어진 작대산과 천주산 사이의 계곡 하부에는 유희정과 석가산을 갖는 방형의 연못이 묘사되고 있다. 유희정이 입지한 곳은 현재 칠원면 무기리 산정마을이다. 주도북이 무기연당을 보수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周鳳祥(1752~1813)은 부친 등 가문의 선산과 함께 유희정 別業園林을 조영하였었다. 따라서 유희정의 건립 시기는 주봉상의 冠禮가 가능한 1766년과 주도북의 생전인 1784년 사이임을 알 수 있다(임한술, 2016).

현재 유희정은 소멸되어 그 형체를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그 밑으로 무기연당의 국담과 유사한 형태의 方塘이 존재하며 지당 내부에는 높이 180cm의 가공한 화강암 위에 '望楸臺'라고 陰刻한 石碑가 세워져 있으며 확인된 유구는 방형의 池塘과 석가산인 中島 등이다. 지당내 석가산의 형상은 자연석에 2면

에 약간의 가공을 한 뒤, '警謁', '洗心'이라 해서체로 刻字하였으며 석가산 상부에는 다양한 괴석을 疊石한 형태였다.

III. 결론

〈하환정도〉 제작 시점인 1860년 전후를 기점으로, 무기연당과 일곽의 정원시설과 경관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무기연당 일곽의 정원유적의 추가 복원 및 원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환정도〉는 무기연당의 조성 당시 내원은 물론 外境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무기연당 정원 및 주변 경관을 이해할 뿐 아니라 외경 및 정원유적 복원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 무기연당은 내원인 菊潭을 중심으로 하환정과 풍욕루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한서문을 경계로 外園 영역에는 본채인 감은재와 사당, 기양서원과 영귀문이 뚜렷하다.
3. 하환정 반대편 국담 池岸에는 3기의 怪石과 함께 다채로운 초화류와 화관목이 식재되었으며, 중도에는 봉황석과 납두석의 배치와 함께 2종의 수목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단풍나무로 확인된다.
4. 〈하환정도〉의 外境에는 무기연당을 중심으로 상부로는 爵大山과 天柱山이, 하부로는 정충비각과 비보숲을 묘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작대산 아래 십 여기의 봉분 형태의 朱氏 墓群과 함께 묘사된 '別業 有懷亭'이다.
5. 현장조사를 통해 〈하환정도〉의 外境에 묘사된 유희정별업 유구를 주씨 선산인 산정리 일대에서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방형의 池塘과 석가산인 中島 그리고 望楸臺 석비 등이다. 지당내 석가산은 자연석에 약간의 가공을 한 뒤, 여러 개의 괴석을 疊石한 형태로 측면에는 '警謁' 그리고 '洗心'이라 각자되어 있다.

참고문헌

1. 「하환정중수기」.
2. 「유희정수석기」.
3. 임한술(2016) 칠원 무기연당 연구:가문의 역사와 원림 조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역사경관연구회(2008) 한국정원답사수첩. 도서출판 동녘, pp264-275.
5. <http://blog.daum.net/kelim/15714513>.
6. <http://museum.haman.go.kr>.